

마음을, 세상을,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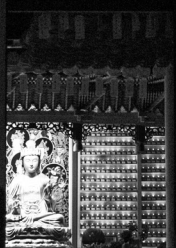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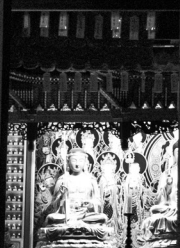
Malgo Hyanggiropge

only practice virtue
can only make our hearts
purified and emptied.



05 2023

《맑고 향기롭게》는
가난한 절 길상사와
이 땅의
텅 빈 사람들에게
법정 스님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차례

1. 시절 인연
행자 교육
2. 법정 스님 편지
샘물 길어 나무에 뿌려 주는 일이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행복의 비결 3
4. 법정 스님 따라 하기
파멸 2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무염족왕의 권력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엄마를 가다리며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맑고 향기롭게와 길상사 소식

《맑고 향기롭게》는 이렇게 만듭니다.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써 두셨던 글, 하신 말씀, 쓰던 물건을 전합니다. 덕조 스님이 간직한 법정 스님의 미발표 원고를 세상에서 처음 신습니다. 달마다 새 글을 올려 맑고 향기롭게 활동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법정 스님 당부를 지켜 종이를 눈곱만큼도 버리지 않는 제본, 곧 국산 아르테160그램 용지를 9번 접어서 20쪽 서첩으로 제작합니다. 화학 풀을 쓰지 않고, 화학 약품 코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젖고 잘 찢어지고 빨리 썩습니다. 한 달 동안 세워 놓고 보고 읽고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과 뜻을 함께하는 지식을만드는지식 출판사가 제작 비용을 보탭니다. 월간 《맑고 향기롭게》는 꼭 할 말만 신고 돈을 아끼면서 환경을 지킵니다.

2023년 5월 1일 발행, 통권 339호, 신고번호 성북라00004호, 1999년 6월 23일 등록. 발행 편집인 / 덕조, 기획 편집 디자인 / 지식을만드는지식, 발행처 / 맑고 향기롭게 모임.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선잠로 5길 68(성북동 323번지) 길상사 내. 전화 02 741 4696 팩스 02 741 4698, 인쇄 / 영신사. 맑고 향기롭게 대구 모임 053 753 8883, 경남 모임 055 266 0170, 광주 모임 062 236 3129,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clean94.or.kr> 전자우편 clean94@hanmail.net. 길상사는 맑고 향기롭게 모임을 도우려고 법정 스님이 세운 절입니다. 전화 02 3672 5945 팩스 02 3672 5947 홈페이지 <http://www.kilsangsa.or.kr> 전자우편 kilsangsa@hanmail.net

1. 시절 인연

행자 교육

수도승이 되기 위해 집을 나온 사람들은 찾아간 도량에서 반드시 행자 시절을 거쳐야 한다. 행자란 오계五戒를 받아 사미승이 되기까지의 기초적인 수련 과정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런 사람들 같지만 부모 형제를 등지고 살던 집을 뛰쳐나온 당사자에게는 필사적으로 선택한 길이다. 몇 밤을 뜬눈으로 지새우면서 일대용단을 내어 스스로 ‘사주팔자’를 바꾼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 수도원을 찾아간 그들의 생각은 그만큼 간절하고 절실하다.

그런데 승가의 전통적인 도제 교육徒弟教育이 사라져 버린 오늘의 절간에서는 이 행자에 대한 교육이 거의 공백 상태다. 기껏 한다는 게 후원에 넣어 상심부름이나 시키고 무슨 뜻인지도 가르쳐 주지 않은 채 ‘수리수리 마하수리...’를 외우게 하고 예불과 불공 의식을 그저 암기시키는데 그치고 있다.

물론 소임을 보고, 불공하는 법을 배워 두는 것이 우리나라 같은 데서 중 노릇을 하는 데에 필수적인 조건이지만, 그런 일들이 적어도 초발심한 행자들에게 교육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첫 마음을 낼 때 정각을 이룬다는 말이 있듯이 구도의 틀을 잡는 데는 무엇보다도 초발심이 중요하다. 막연하고 조금은 들떠 있는 그 마음을 보리耬提의 땅에 정착, 거둬들여 밭심게 하여 불퇴전의 의지를 길러 줌으로써 일상적인 일에서 출세간의 의미를 느끼도록 배려하고 거들어 주는 것이 선착자先着者의 도리다.

모처럼 큰마음 먹고 찾아간 절에서 일꾼처럼 부리기만 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정착을 못하고 이 절은 어떨까 저 절은 어떨까 하면서 ‘행자수좌’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아는 어떤 큰 절은 한 달이면 10여 명씩 출가 희망자가 찾아오는데, 그들의 대부분은 열흘이 못 가 타고 왔던 버스를 되타고 가 버린다. 물론 오는 대로 전부 정착하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절반쯤은 닦을 내릴 수 있도록 보살펴 줘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절의 주지와 주지보다 더 큰 스님은 전국을 누비면서 먼 데 있는 신도들은 교화할 줄 알면서도, 정착 자신들이 주관하는 도량에 있는 행자들에게는 전혀 교화를 끼치지 않는다. 무책임한 처사다.

다들 큰 것만을 좋아하는 대선사大禪師 대종사大宗師, 그리고 대조사大祖師가 어떤 경로를 거쳐 옴터 났는가. 물을 것도 없이 그들은 모두가 초발심의 행자 과정을 통해 그 싹이 튼 것이다. 심지어 종정 예하계급에서도 그렇고 종회의원 제씨도 그렇고 모두가 한결같이 초발심 의 행자 시절을 거친 사람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초발심할 때 어떤 환경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느냐는 것은 수도승으로서 평생을 두고 중요한 구실을 하게 마련이 아니 수행승이라면 생생하게 간직하고 있을 것이다. 행자 시절의 그 청청靑靑한 기억들을. 그 시절에 들은 어떤 법문은 아직까지도 그 빛을 발하고 있으리라.

토마스 머튼의 《칠층산七層山》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평생 침묵을 고수하는 트라피스트가 되려는 지원자에게 그 수도회修道會의 원장 신부는 입회를 허락하면서 다음과 같은 당부를 한다.

“당신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더 좋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쁘게 만들 수도 있소. 늘 즐겁게 사시오. 그러나 아무렇게나 살지는 마시오.” 1977

어서 이 혼탁을

부처님! 오늘날 한국 불교가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없는 종교라면 그것은 하등의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이 우리 강토에 들어온 지 천육백 년. 오늘날처럼 이렇게 병든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 까닭은 물을 것도 없이 제자 된 저희들 전체가 못난 탓입니다. 늘 당신에게 죄스럽고 또 억울하게 생각되는 것은 것처럼 뛰어난 당신의 가르침이 오늘날 저와 같은 제자를 잘못 두어 빛을 잃고 또 오해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 한국 불교의 건설은 저희들 제자의 공통한 비원悲願입니다. 무관심처럼 비참한 대인 관계는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그 무관심이 구도자의 주변에 뿌리내릴 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일체중생에게 주어진 당신의 자비가 무관심의 소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주체롭게 고성으로 지껄인 것입니다. 이 혼탁을 어서 벗겨야 한다는 비원에서 버릇없이 당신에게 호소한 것입니다.

언제인가 과감한 일대 개혁이 없이는 당신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는 영영 질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박차고 나섰던 저 혼미한 브라만들에 대한 ‘부정의 결의’가 없고서는. 1964

3. 다시 만나는 법정 스님

행복의 비결 3

이 글은 법정 스님께서 어느 해 부처님 오신 날에 하신 법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법문은 어떤 책으로도 출간되지 않았 습니다.

《초발심자경문初發心自警文》에도 보면 맨 처음에 수원 리악우須遠離惡友하고 친근현선親近賢善하라 이런 게 나와요. 나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이를 가까이 하라는 교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어져요. 친구의 영향이라는 것은 마치 안개 속에서 옷이 젖는 것과 같습니다. 아는 듯 모르는 듯 다 젖기 마련이에요. 어진 사람과 가까이하게 되면 나 자신이 어질어져요.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향상이 되니까.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고 일찍이 덕행을 쌓고 바른 원을 세우라.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분수에 알맞은 곳에 살아야 해요. 자기 처지도 모르고 호화판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장소가 됐건 집이 됐건 혹은 가재도구가 됐건 분수에 알맞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찍부터 덕행을 쌓으라는 겁니다. 또 바른 원願을 세우라는 겁니다.

원이라는 건 삶의 목표고 희망입니다. 원을 세운 사람은 어떤 상황에 부딪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이 없는 사람들은 일일이 늘 흔들려요. 그래서 원을 세우라

는 거예요. 부처님과 보살은 무슨 힘으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원의 힘으로 부처가 된 겁니다. 중생은 그 원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업의 늪에 휩쓸려 다니잖 아요. 그게 불보살과 중생이 다른 점입니다. 똑같은 불 성을 지녔으면서도 한쪽에서는 큰 원을 세워서, 그 원 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키워 갔고, 한쪽은 똑같 은 불성을 지녔으면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업에 휘말려서 하루하루 중생 놀음을 한다는 겁니다. “부모를 섬기고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고 보살피라. 일 의 질서가 있어 혼란스럽지 않은 것, 이것이 더없는 행 복이니라.”

왜 이런 당연한 소리가 경전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나이 들어 귀찮다고 해서 어디 양 로원이나 관광지에 내버리는 일이 가끔 있지 않습니 까? 또 부모가 자식을 마치 소유물로 생각하는 일이 왕왕 있어요. 죽으려면 저나 죽지 왜 자식까지 데리고 동반자살을 해. 별개의 인격인데. 질문한 사람이 남자 이기 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만 약에 여자가 물었다면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라고 했겠 지요. 경전을 읽을 때 묻는 사람에 따라서 부처님 답이 그렇게 다릅니다.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와 때로는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존경할 대상이 없는 인생은 황량합니다. 현재의 인간 이 됐건 과거의 역사적인 인물이 됐건 간에 존경할 대 상이 있다는 것은 자기 삶의 목표가 되어서 자기에게 큰 영향을 끼쳐요. 또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 신을 생각할 때 오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족 할 줄 알아야 돼요. 현대인들은 무엇을 가지고도 만족

할 줄을 모른다니까. 늘 갈증 상태예요. 자기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 물건이, 그 일이 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만족할 줄을 모른다고요.

“세상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걱정 근심 이 없어 편안한 것, 이것이 더없는 행복이니라.”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 앞에서도 마음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 서 있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늘 이리저리 팔리면서 걱정 근심 그칠 새가 없습니 다. 자기 중심이 확고하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크게 흔들리거나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닥쳐도 좌절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행복할 것이다.”

부처님의 결론이에요.

초기 경전 《숫타니파타》에 보면 더없는 행복의 장이 있어요. 위에서 말한 건 거기서 제가 추린 겁니다.

제가 법문할 때 《숫타니파타》나 《법구경》을 많이 인용 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저 스님은 《대승경전》《화엄 경》《법화경》 같은 거창한 경전을 인용하지 않고 초기 경전 가지고 저런 소리를 할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숫타니파타》와 《법구경》은 근 본 경전이에요. 《대승경전》은 이 토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처님의 육성이 배어 있는 경전 이 《숫타니파타》입니다. 또 이 법문은 현학적이지 않 기 때문에 누구든지 읽고 들으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 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4. 법정 스님 따라하기

파멸 2

법정 스님이 번역하신 《숫타니파타》와 그에 대한 강론을 연재합니다.

107.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덟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아홉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08. “자기 아내로 만족하지 않고, 매춘부와 놀아나고 남의 아내와 어울린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09.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홉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열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10. “한창때가 지난 남자가 턱발 열매처럼 불룩한 젖가슴을 가진 젊은 여인을 유혹하고 그녀에 대해 질투하는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11.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열한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12. “술과 고기 맛에 빠져 재물을 헤프게 쓰는 여자나 남자에게 집안일을 맡긴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13. “잘 알겠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이것이 열한 번째 파멸의 문입니다. 스승님, 열두 번째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파멸의 문은 무엇입니까?”

114. “크샤트리아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권세는 작는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

115. 세상에는 이와 같은 파멸의 문이 있다는 것을 잘 살펴, 현자와 성자들은 진리를 보고 행복한 세계에 이른다.”

(91~115 강론)

집을 비우고 열흘 가까이 여기저기 한 바퀴 돌아다니다가 오니 녹음이 짙어져 있다. 그새 모란은 자취도 없이 사라지고 작약이 꽃망울을 부풀리고 있다. 후박나무 그늘 아래 통나무 의자를 하나 옮겨다 놓았다. 그 위에 걸터앉아 앞산을 바라보고 있으니, 은은한 후박꽃 향기도 좋으려니와 투명한 초록의 나무들이 아주 정답게 느껴진다.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최루탄 때문에 눈물과 콧물과 재채기로 얼룩진 내 숨결이 숲 향기로 인해 다시 맑혀지는 것 같다.

5월을 두고 ‘계절의 여왕’이라고들 하지만, 이 근래에 와서(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5·16 군사 쿠데타와 5·18 광주 학살 이후) 이 땅에서는 그런 5월이 사라져 버렸다. 정치권력에 맞들인 군인들에 의해 자행된 그 무자비한 살육이 눈부신 5월을 우리한테서 앗아가 버린 것이다.

신록의 향기 대신 최루탄 가스가 전 국토를 더럽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땅에 언제 다시 5월이 계절의 여왕으로 복귀할 것인가.

‘크샤트리아(武士, 군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권세는 작는데 욕망만 커서, 이 세상에서 왕위를 얻고자 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다(114).

우리 현실에 아주 적절한 교훈이다.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진 군인이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요즘의 유행어를 따른다면 주제 파악을 못하고, 정치권력을 노려 최고 통치권자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파멸의 길이라는 말씀.

우리 현대사에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의 뒤끝이 바로 이를 증명해 주고 있지 않은가. 개인도 파멸의 문으로 들어갔고, 국가도 또한 통치자를 잘못 만나 그만큼 피해와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수에 맞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남의 영역을 침해해 가면서 욕심을 부린다면, 자신도 해치고 이웃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마련이다.

우리가 전문직을 익히고 그 길에 한평생 종사하는 것도, 그런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파멸>의 장을 읽어 보면 한결같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 경전의 이름 아래 어찌서 이런 범속한 일들이 스승의 교훈으로 다루어졌을까.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5. 선재동자와 함께 떠나는 선지식 여행

무염족왕의 권력

다시 천신이 말했다.

“선남자여, 그대는 선지식의 말을 잊지 말라.
선지식은 그대를 인도해
험난하지 않고 편안한 곳에 이르게 할 것이다.
보살의 오묘한 방편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거두어 주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생각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수호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해탈케 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고,
중생을 조복하는 지혜는 헤아릴 수 없느니라.”

선재동자는 선지식의 가르침을 깊이 새겼다.
선지식은 나를 거두어 주고 나를 수호하며,
내가 위없는 보리에서 물러가지 않도록 한다고
생각하며 환희심을 냈다.

깨끗이 믿는 마음과 광대한 마음과 화창한 마음,
뛰노는 마음, 경축하는 마음, 미묘한 마음,
고요한 마음, 장엄한 마음, 집착 없는 마음,
결림 없는 마음, 평등한 마음, 자재한 마음,
법에 머무는 마음, 부처님 세계에 두루 가는 마음,
부처님의 장엄을 보는 마음,
열 가지 힘을 버리지 않는 마음을 냈다.

남쪽으로 가면서 나라와 도시와 마을을 지나

다라당성에 이르러, 무염족왕의 처소를 물으니
사람들은 이와 같이 대답했다.

“왕은 지금 정전의 사자좌에 앉아
법화法化를 선포해 중생을 조복하고 계십니다.
다스릴 사람은 다스리고
거두어 줄 사람은 거두어 주며,
죄악을 벌하고 소송을 판결합니다.
외롭고 나약한 사람들은 어루만져 주고,
모든 이에게 살생과 도둑질과
그릇된 음행을 영원히 끊게 하며,
거짓말과 이간질과 악담과
번드레하게 꾸며 대는 말을 못하게 하고,
탐욕과 성냄과 그릇된 소견을 멀리 떠나게 합니다.”

선재동자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갔다.
왕은 나라연 금강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에게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
대항할 이가 아무도 없었고,
수많은 대신들이 그를 앞뒤로 모시고
나랏일을 함께 처리하고 있었다.
또 왕 앞에는
십만 군졸들이 늘어서 있었는데,
용모가 추악하고 의복이 누추하며
무장을 하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
보는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했다.
무수한 중생이 왕의 법을 범해
갖은 형벌을 받았는데,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목숨을 해치거나
남의 아내를 범하거나 그릇된 소견을 내거나
원한을 품었거나

탐욕과 질투로 인해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포박당한 채로 왕 앞에 끌려 나와
범한 죄에 따라 형벌을 받았다.
그들의 손과 발을 끊기도 하고
귀와 코를 베기도 하며, 눈알을 뽑고 목을 치고
살갓을 벗기고 살을 도려내기도 하며,
끓는 물에 삶고 타는 불에 지지기도 하며,
높은 산에 끌고 올라가 밀어 떨어뜨리는 등
끔찍한 고통이 한량없어,
울부짖는 소리가 마치
중합지옥衆合地獄과 같았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선재동자는 생각했다.
‘나는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
보살행을 구하고 보살도를 닦는데,
이 왕은 선한 법은 하나도 없이
큰 죄업만을 짓고 있다.
중생을 핍박해 생명을 빼앗으면서도
미래에 받을 악도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어떻게 이런 데서 법을 구하고
대비심을 내어 중생을 구호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생각하는데
공중에서 어떤 천신의 말이 들려왔다.
“선남자여,
그대는 마땅히 보안 장자가 가르쳐 준 말을 명심하라.”

선재는 우러러보면서 말했다.
“나는 항상 생각하며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6. 다실에서 / 이해인 수녀의 시

엄마를 기다리며

동생과 둘이서
시장 가신 엄마를 기다리다가
나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문득 눈을 떠 보니
“언니, 이것 봐!
우리 엄마 냄새 난다.”

벽에 걸려 있는
엄마의 치마폭에 코를 대고
웃고 있는 내 동생.

시장 바구니 들고
골목길을 돌아오는
엄마 모습이 금방 보일 듯하여

나는 동생 손목을 잡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엄마 기다리는 우리 마음에
빨간 노을이 물듭니다.

7. 맑고 향기롭게 사는 사람들

중앙 모임 소식 (02-741-4696)

● 남을 위해다는 연등 하나 '자비의 등 달기'

'자비의 등 달기' 운동은 법정 스님께서 불일암에 머무르실 때부터 주창하신 나눔 운동입니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이 아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등을 밝히려는 취지로 1995년 시작한 운동입니다. '자비의 등' 수익금은 맑고 향기롭게 모임과 결연을 맺고 있는 재가복지(반찬 나눔 460여 가구) 대상자를 위해서 특별 물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

※ '자비의 등' 동참 방법

① 홈페이지 후원하기: 일시후원(카드 결제, 계좌 이체, 핸드폰 결제 가능)

② 계좌 이체: 국민은행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③ 사무국 방문 신청

※ '자비의 등' 동참금은 1인 최소 1만 원 이상(등표에는 1명 이름만 기재)

※ 후원금을 보내실 때 입금자 이름 옆에 '(자비)'라고 써 주세요.

※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 맑고 향기롭게

● 2023년 '걷기 좋은 숲길' 숲 기행 진행합니다.

● 일정: 6월 6일(화) / 장소: 강원도 양구군 해안마을 DMZ 편치불 둘레길

● 참가자 신청 접수 일자: 5월 1일(월) 홈페이지로 접수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소식지 우편 발송: 3일(수)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책 읽기 필사 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향기우체부 소모임: 격주 금요일 오전 10시 세계일화실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서울노인복지센터 급식 자원 활동: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울노인복지센터 1층 반말식당 ● 반찬 나눔 자원 활동: 매주 목요일 오전 9시 30분 맑고 향기롭게 조리장 ● 뜨개질 소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세계일화실 / 비대면 활동 ● 제4기 대학 장학생 면접 심사: 5월 14일(일) ● 제4기 대학 장학생 증서 수여식: 5월 21일(일)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숲 기행: 6월 6일(화) / 강원도 양구군 해안마을 DMZ 편치불 둘레길

● 정기재정 후원

● 인도 다람살라 집양(jamyang) 비구니 스님 학교 후원

대구 모임 소식 (053-753-8883)

● 마음을 맑고 향기롭게

● 맑고 향기로운 글 나눔 사업 ● 상담, 심리치료, 정서지원 프로그램 운영

●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 사각지대 아동, 청소년, 홀로어르신 등 지원 ● 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 저소득층 자활중독자 지원 / 보호시설 종료(자립 준비) 청소년·청년 지원 ● 각종 자원봉사 활동(1365등록기관)

● 자연을 맑고 향기롭게

● 무소유 기행 / 아나바다 공유 사업

경남 모임 소식 (055-266-0170)

● 보현행원(무료 노인 요양원): 매월 셋째 수요일 말벗 및 빨래 노력 봉사 / 오전 9시 30분 사무국 출발 ● 사파복지회관 무료 급식소: 매월 넷째 주 화요일과 매주 토요일 점심 준비 및 설거지, 배식 봉사 / 오전 10시~오후 2시

● 해 뜨는 교실(봉림청소년문화의집):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공부방에 학습지도 및 간식 지원 ● 결연 가정 후원: 월 생활비 지원, 말반찬 및 김장김치 나누기 / 명절 및 가정의 달 세대 방문 성금 및 생필품 전달

● 장학금 후원: 결연 세대 청소년 장학금 지원

광주 모임 소식 (062-236-3129)

● 점심 공양 나눔: 매주 월요일~금요일 / 고려자, 저소득,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천 원의 밥상(점심) 운영 / 오전 9시 30분~오후 2시 / 봉사자 및 후원자 모집 ● 김치 담그기: 매주 토요일 진행 ● 자비의 도시락 나눔: 매주 월요일~금요일 / 저소득 가정에 도시락 나눔 ● 장터 및 바자회, 쓰레기 줍기 캠페인: 비정기적으로 회원 및 봉사자들 참여 진행 ● 독서, 노래 모임: 법정 스님 저서 읽고 회원들과 교류

가난한 절 길상사

(02)3672-5945/전송:(02)3672-5947

● 천수다라니 33독 기도

● 일시: 5월 6일(토) 오후 6시~8시 30분 ● 장소: 극락전

● 부처님 오신 날 맞이 연등 점등식

● 일시: 5월 6일(토) 오후 8시 30분 ● 장소: 극락전 앞마당

●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 일시: 5월 27일(토) 오후 9시 50분 ● 장소: 극락전
※ 관불의식은 오전 9시부터 극락전 앞에서 봉행됩니다.

● 부처님 오신 날 길상 음악회

● 일시: 5월 27일(토) 오후 7시 ● 장소: 극락전 마당 ● 출연: 길상사 합창단, 그린비(남성 5중창), 시즌오브소울(퓨전 국악 그룹), 국민가수 박창근

● 부처님 오신 날 연등 공양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맑고 향기롭게 근본도량 길상사에서는 연등 공양을 받습니다. ※ 문의 및 접수: 길상사 증무소 02-3672-5945

극락전(법당) 연등	지장전(법당) 연등	
대등(가족·영가등)	100만원	영가등
가족등	10만원	10만원

도량(마당) 연등	
가족등·영가등·수기등	3만원

● 5월의 길상사 정기 법회·기도

기도명/법회	날짜	시간	장소
보름기도	5월 4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다라니기도	5월 6일	오후 6시~8시 30분	극락전
지장재일	5월 7일	오전 9시 50분	지장전
관음재일	5월 13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초하루기도 및 법회	5월 20일	오전 9시 50분	극락전
극락전기도	매일	새벽 4시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극락전
지장전기도	매일	새벽 4시 40분 / 오전 9시 50분 / 오후 7시	지장전

(사)맑고 향기롭게 후원 안내

간편한 CMS 후원 금융결제원의 중개를 통해 후원자님의 계좌에서 후원금을 인출하여 본 모임으로 입금되는 방식으로서 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습니다. 본 모임 홈페이지에서 후원 회원 가입 후 CMS 후원을 신청하거나,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서면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후원자님이 원하시는 일자에 매월 일정 금액이 본 모임으로 입금되도록 하는 후원 방법으로서 주민등록증, 통장, 도장을 지참하고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후원 금액 변동이나 중단 시에는 신청한 은행에 직접 가야 합니다.

지로 후원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소식지와 함께 배송되는 지로 용지나 지로 번호를 통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후원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지로 번호 7618372)

일시 후원 자신의 뜻깊은 일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경우, 정기적인 후원이 부담되는 경우, 본 모임 회원은 아니지만, 활동에 공감하여 일시적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 다달이 소식지를 받아 보는 우편비로 소정의 금액을 후원하고자 하는 경우에 직접 본 모임 후원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입니다.

정기 후원 · 회원 가입

(사)맑고 향기롭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후원 회원 등록하거나 (사)맑고 향기롭게 사무국에 방문하여 가입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자동이체 후원 계좌

중앙 모임 02-741-4696

일반 사업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3-129

하나 201-890400-87705

농협 029-01-199412

결식 이웃 후원 계좌: 국민 817-01-0255-458

신한 100-013-787953

장학금 후원 계좌: 하나 220-890015-10204

대구 모임 053-753-8883 후원 계좌: 대구 002-05-016277-8

경남 모임 055-266-0170 후원 계좌: 농협 932-01-002933

광주 모임 062-236-3129 후원 계좌: 농협 355-0018-7812-13

(사)맑고 향기롭게는 종교 법인으로 인가되어 후원하신 금액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의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